

내신 자신 없다면...수능에 올인해 봐

2008학년도 수능 우선 선발 대학

대학	전형방법	모집인원
전남대	기군·수능 100% 나군·학생부 50%+수능 40%+ 면접 10%	입학 정원의 20%를 수능 100% 선발로 모집
고려대	학생부 50%+수능 40%+논술 10%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모집 단위별 지원자의 최대 50%를 수능 우선 선발로 모집
경희대	학생부 50%+수능 40%+논술 10%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모집 인원의 50%를 수능우선 선발로 모집
서강대	학생부 50%+수능 40%+논술 10%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모집 인원의 30%를 수능 우선선발로 모집
성균관대	기군·학생부 50%+수능 40%+ 논술 10% 나군·학생부 50%+수능 50%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입학 정원 50%를 선발하는 정 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의 50% 를 수능우선선발로 모집
연세대	기군·학생부 50%+수능 40%+ 논술 10% 나군·학생부 20%+수능 80%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정시 모집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수능우선선발로 모집
이화여대	학생부 50%+수능 40%+논술 10% 사법계:학생부 50%+수능40%+ 면접 1%+논술 9%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정시 모집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수능우선선발로 모집
중앙대	학생부 50%+수능 40%+논술 10%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입학 정원 50%를 선발하는 정 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의 50% 를 수능우선선발로 모집
한국외대	기군·학생부 50%+수능 40%+ 논술 10% *수능우선선발:수능 100%	정시 모집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수능우선선발로 모집

전남대 20%, 고려·연세대 50% 수능 우선 선발

수능성적이나 논술 중심의 대입 전형 방식에 내신이 좋지 않은 중상위권 이상 수험생들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률을 50%로 상향·확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고수, 소폭이나마 내신 실질반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입 전문가들은 내신이 나쁜 정시모집의 '수능 우선 선발'이나 '수능 100% 전형' 등을 염두에 두고 동요 없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수능 우선 선발 실시 대학은 수능 우선 선발은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 일반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의 수도권 대학들에 집중돼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정원의 30~50%를 수능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고려대·연세대·경희대·성균관대·이화

여대·서울시립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 등은 정원의 50%를, 서강대는 30%를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 '군(群)'을 나누어 분할 모집하는 대학 중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다.

'가, 나'군으로 나누어 선발하는 전남대는 가군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896명(광주 695명, 여수 201명)을 선발한다. 건국대는 다군에서 1천 279명, 동국대는 가군에서 817명을 각각 수능성적으로 뽑는다.

서울 일부 대학은 수시 2학기에서 '학생부 20%+논술 80%' 등 논술중심 전형으로 정원의 15% 가량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일반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수리 및 외국어영역 1등급을 얻은 수험생 579명을 이런 방식으로 뽑는다. 연세대는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459명을 선발한다. 인문계는 수능 언어와 외국어 1등급, 자연계는 수리 '가'와 과학탐구 중 하나는 1등급, 다른 하

나는 2등급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유형별 맞춤 전략은 수능성적은 우수하지만 학생부와 논술이 약한 학생은 정시모집의 수능 우선 선발이나 수능 100% 전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수능성적과 논술은 우수하지만 학생부가 약한 학생은 고려대나 연세대의 수시 일반전형이나 주요 대학 정시모집의 수능 우선 선발 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성적만으로 50%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수능·논술·학생부로 선발하는 만큼 한 번의 지원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 정시 모집 일반선발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와 논술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능이 약한 학생은 수시 일반 선발 전형을 노리는 것이 좋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연세대의 수시 모집 중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또는 일반우수자 전형, 고려대의 수시 모집 중 일반전형 등 대부분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생부와 논술중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도움말·유웨이중앙교육〉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국학 칼럼

아리랑의 참뜻을 아십니까



이승현

몇 년 전 일이다. 해외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선정대회'가 열렸다. 그 대회에서 1위로 선정된 곡은 다른 아닌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었다. 이 대회는 해외의 우수한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는데 국내외의 작곡가들은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8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1위가 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 민족을 사로잡은 노래가 외국인들의 영혼도 울리지 않는가. 참으로 가슴 뭉뚱하고 호뭇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우리 민족의 애창곡이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아리랑'을 꼽을 것이다. 그 기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줄곧 애창곡 '아리랑'을 불러왔다. 이 노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애창되는 겨레의 노래요, 일제 강점기 때는 겨레의 울분과 민족의 한을 표출하는 저항의 노래였다. 지금도 남북한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며,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아리랑을 부를 때면 우리도 모르게 옆 사람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걸어 하나가 된다. 그만큼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흔히 버림받은 여인의 한 맺힌 노래라고 하는 아리랑을 수천 년 동안 부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아리랑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깊은 뜻이 숨어있다. 27년 전 처음 단학을 보급할 때부터 필자는 아리랑의 참 의미를 알려왔다. 지금은 외국인들에게도 아리랑은 '나를 찾아가는 기쁨의 노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단학인이라면 누구나 깨달음의 노래로 아리랑을 부른다. 아리랑은 또한 우리 민족의 얼이 영글고 영글어서 만들어진 영혼의 노래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원망이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삶의 영원한 근원, 참나, 커다란 민족적 자아가 '남'으로 생각됐고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깊이 인식됐던 것이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아리랑을 불러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깨달음의 노래로 아리랑을 풀어보면 이렇다. 아리랑은 한자로 '我理躬'이다. '我'는 '참 나'를 의미한다. '理'는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이고, '躬'은 즐거움을 의미한다. 아리랑은 '참 나를 깨닫는 즐거움'이란 뜻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참 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심(心)'은 '완성'을 의미하므로, '심 리'를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심오한 깨달음의 노래가 우리 민족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수난을 겪으면서, 한 맺힌 여인의 노래로 변질됐던 것이다.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천천히 아리랑을 불러보라.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질 것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원하고 근원적인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절로 난다. 자기 자신에게 불러줄 수 있는 노래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

우리는 아리랑에서 한민족의 깨달음의 철학과 전통을 재발견해야 한다. 이제껏 버림받은 여인의 한을 노래한 정환의 노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래 가사에 담겨있는 '참 나를 깨닫는 기쁨'의 뜻을 충분히 인식하고, 끝없는 개인적, 집단적 수난을 통해 자신과 전체를 완성하고자 하는 정신이 녹아들어 갈 때, 아리랑은 진정한 민족의 노래, 나아가 인류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깨달음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학연구소총합대학원대학교 총장, 국학인 설립자〉

캠퍼스 소식

머레이대와 복수학위 교류



○조선대(총장 김주환)가 미국 머레이주립대학(총장 랜디 던)과 '연계전공 복수학위 프로그램 이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학생은 학부과정 1년을 마치고 머레이대학으로 건너가, 2·3학년 공공교육과정 및 1년간 연계전공 복수학위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조선대에서 마지막 학년을 이수하면 양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조선대와 머레이대학은 양측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계전공 복수학위 위원회를 설립,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2007년 가을학기부터 연간 5명의 조선대 학생들을 머레이대학에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 캔터키주 머레이 시티에 소재한 머레이주립대학은 미국 주립대학 및 대학연합에서 남서부지역 대학들 중 6위에 랭크된 대학이다.

여름방학 750여명 외국연수

○전남대(총장 강정재)는 여름방학을 맞아 재학생 750여명이 학교의 지원으로 외국 연수를 떠난다고 21일 밝혔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점을 받아오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는 33명이 선발돼 미국 미주리 대학, 일본 오사카대학, 중국 푸단대학 등 3개국 11개 대학에서 수학하게 된다. 언어연수와 외국 직장체험을 결합 수 있



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는 32명이, 언어연수 프로그램에는 141명이 각각 선발됐다.

이밖에 학생들이 팀을 꾸려 국가와 주제를 정해 떠나는 세계교육여행 프로그램 204명, 국제워크캠프 29명,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프로그램 3명 등도 외국 문물을 익히도록 했다. 각 단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도 300여 명이 참여한다.



미래의 과학자 꿈꾸며...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과학교육원이 주관한 '2007 광주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가 21일 과학교육원과 광주공고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학교 및 지역교육청 대회를 통해 선발된 과학꿈나무 395명이 참가, 과학그림·항공과학·로봇과학·전자과학·기계과학·로켓과학·탐구도론 등 6개 중목 17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광주·전남 과학고 입시일정 확정

광주·전남지역 과학고등학교 2008년 입시 일정이 확정됐다.

광주과학고의 원서 접수는 10월15~17일까지 진행되며, 1차 전형 합격자는 10월19일 발표된다. 수학(100점)과 과학(100점) 두 과목을 치르는 기초탐구능력검사는 10월20일 실시될 예정이다.

내신성적(300점)과 가산점(5점)으로 서류 전형인 1차 전형이 진행되고, 기초탐구능력검사와(200점)가 2차 전형, 심층면접(200점)이 3차 전형으로 치러진다. 가산점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에 주어진다. 모집 인원은 4학급 80명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9일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2-620-3203.

전남과학고는 10월22~25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는다. 내신(400점), 기초탐구능력검사(수학 50점·과학 50점), 창의력 검사 및 면접(40점) 등 3단계 전형으로 실시된다. 모집 인원은 3학급 69명.

창의력 검사 및 면접은 중학교 과정의 수학, 과학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한다. 과목별 배점은 수학 20점, 과학 20점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11월12일 발표한다. 문의 061-330-2300. /정성필기자 camus@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절집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판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땅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이틀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베트남 국제결혼

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함께합니다.

- 본사만의 장점**
 1. 본사가 베트남현지에서 위치하여 결혼비용 완전 거품제거-실속결혼비용
 2.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현지 대행사로 풍부한 성흔 노하우 축적
 3. 현지 최다 여성회원 보유
 4. 배우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 그에 맞는 상대여성 과 초·재혼·만혼별 맞춤형 추천
 5. 신부대상 한글, 한국문화, 예절교육을 입국전 실시하여 국내적응지원

베트남 결혼수수료 무료 고충상담
대상 : 베트남 결혼여행 후 결혼수수료 지원으로 4개월 이 지나도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본사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문제점을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베/트/남/전/문 -----
아오자이국제결혼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55-1 금양오피스빌 1003호

문의 전화 **062)232-8966**
010-5256-8966